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7월 21일(수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안전정책과	담 당 자 • 안전협력담당 이중희 ☎440-5751/010-5438-3800 • 담당자 박태범 ☎440-5752/010-4705-9310				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시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준비 “착착”

- 시민의 소리로 점검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-
- 의견 제출 7월 28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방안(‘21.7.)이 정해짐에 따라 올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시민과 소통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 방치되어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정부, 지자체,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주도하는 사전 재난예방활동이다. 이번 2021년도에 추진되는 대진단은 국회·감사원 등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·보완하여 ▲중복점검 최소화 ▲사후관리 강화방안 ▲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2021년 대진단을 추진한다.

이에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올해 4월에 발족한 ‘우리 마을 안전지킴이’, ‘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’ 등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인천시 사각지대에

있는 노후 건축물, 고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점검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
의견 제출 기간은 7월 28일까지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, 인천시 안전정책과로 전화(032-440-5752~3, 5755) 또는 이메일(ptb2347@korea.kr)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 주소, 시설물명 등을 알려만 주면 된다.

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“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” 며 “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” 고 말했다.